

인터넷 강의 CD·교재 방문판매 대학생 피해 급증

자격증 취득·어학 학습 등
“무료” 현혹한뒤 계약서 작성
작년 피해건수 91건...35% ↑
90%이상 계약 해제·해지 거절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 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다가 나중에 대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을 파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YWCA소비자상담실 등 소비자단체들이 가두캠페인을 열고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

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드름 없애려다 악화 피부관리실 부작용 속출

홍조·가려움·색소침착 등 겪어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겪는 부작용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상담은 총 2763건으로, 이 중 계약해지 상담이 63.8%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14.7%), 부작용(11.1%), 화장품 구매 등 부당행위(3.6%), 서비스 불만족(1.4%)이 그 뒤를 이었다.

부작용 상담의 경우 증상은 여드름 악화·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 화상(8.2%), 상처·흉터(7.8%) 등이었다.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 서비스는 리프트·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 여드름 관리(15.6%) 순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이나 마취연고를 바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소근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4%는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기기는 고주파(76%),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유분촉정기(13%) 등이었다. 기기로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는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39곳 중 4곳만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부작용이 일어나도 피부관리실 측이 보상을 미루는 등의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마취크림 등을 쓰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기온수매트 에너지 효율

제품별로 최대 1.6배 차이

겨울철 보조 난방기구로 많이 쓰이는 전기온수매트의 에너지 효율이 제품에 따라 최대 1.6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에서 파는 전기온수매트 13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취침모드로 8시간 사용 시 에너지효율이 제품별로 65.4Wh/K(삼진웰퍼스 HM2B)~105.5Wh/K(파코론 PAS-001M)로, 차이는 최대 1.6배였다. 에너지효율은 표면온도 1도 상승·유지에 필요한 소비전력량으로 적을수록 효율이 좋다.

모든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환경영향평가(HWM-2000Q) 제품은 보일러와 호스 연결부에서 호스가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상 수리·교환해주고, 호스연결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개선 조치 중이다. 소음(음향파워레벨)은 8개 제품이 26dB 이하, 5개 제품이 27~33dB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조용했다. 전자파 발생량은 최소 1mG 이하, 최대 8mG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한계치인 833mG(60Hz)에 크게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몰 기준 제품 판매가격은 15만4천원(구들장 GDJ-W2)~32만7천원(파코론 PAG-001)이었다. /연합뉴스

‘고객정보 장사’ 흠플러스 상대 집단소송 추진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송 참여자 모집 나서

2011년 말~2014년 7월 경품응모자 대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흠플러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흠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가 검찰에 적발돼 현재 임직원들이 재판

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흠플러스가 입수한 고객정보는 2400만여건, 한 건당 1000~4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한 흠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한다”며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로부터 소비자주권익을 확립시키고자 3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이번 소송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흠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흠플러스 회원가입자 이면서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품응모에 참여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상담센터 및 10개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소송 비용은 1만원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흠플러스 고객 152명은 흠플러스에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hello cam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vision.com